

# 담양군 전 지역 슬로시티로 꾸민다

### 주민이 슬로시티마을 발굴 '슬로시티 전역화' 사업 추진 행·재정적 지원 조례 개정도

담양 전 지역을 슬로시티 가치와 이념이 담긴 곳으로 조성하는 '담양 슬로시티 전역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슬로시티 담양군 전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한 세부 실행계획을 본격 진행 중이다.

'슬로시티 전역화 계획'은 고유한 문화적·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 슬로시티 마을을 발굴, 육성하면서 전 지역으로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슬로시티 가치를 확산해 나가자는 정책이다.

담양군은 지난 3월 전 지역에 대한 슬로시티 재인증 받은 이후 '군민이 행복한 슬로시티'를 내걸고 적극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슬로시티 전 지역화는 ▲슬로시티 기반 구축 ▲슬로시티 가치 확산 ▲슬로시티 핵심사업 발굴 등 3개의 기본 전략과 11개의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본격화된다.

담양군은 우선, 슬로시티 기반 구축 작업의 하나로 슬로시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기준을 담은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국 16개 시·군과 공동 보조를 맞춰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또 12개 면에서 슬로시티 마을을



담양 전 지역을 슬로시티 가치와 이념이 담긴 곳으로 조성하는 '담양 슬로시티 전역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담양 슬로시티에서 열린 고학음악회 모습. <담양군 제공>

발굴, 육성하는데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 신청토록 했다. 고유한 지역 생태문화와 특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슬로시티 마을을 조성하는 데 주민 참여가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민들이 직접 슬로시티 사업을 구상하고 논의해 결정하기 위한 주민 협의체 구성 계획도 이같은 의도가 반영됐다.

전 지역에 슬로시티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계획으로 한국슬로시티본부와 연계, 울

하반기부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슬로투어리즘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슬로공동체 지도자·슬로라이프 디자이너 양성교육도 진행하고 지역민, 공무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슬로시티 인식 교육과 슬로라이프 실천 캠페인도 실시한다.

담양만의 슬로시티 핵심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으로 담양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지역을 둘러보는 슬로워킹대회, 죽녹원 등을 활용한 전자파 제로지대에서 생활하기

운동 등도 구상 중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주민들 스스로 슬로시티의 가치를 확산,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 계획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은 지난 2007년 창평 삼지내 마을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뒤 2013년 재인증, 2019년 3월에는 담양군 전역이 슬로시티로 재인증을 받았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본격 준비 작업 군, 지역 12개 금융기관과 판매 업무 대행 협약 체결

화순군이 지역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화순군은 지난 23일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12개 금융기관과 '화순사랑상품권 판매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를 비롯해 화순축협, 화순산림조합,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새마을금고, 화순신협, 화순농협, 능주농협, 이양정풍농협, 도곡농협, 동북농협, 천운농협 등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를 비롯해 화순축협, 화순산림조합,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새마을금고, 화순신협, 화순농협, 능주농협, 이양정풍농협, 도곡농협, 동북농협, 천운농협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화순사랑상품권의 보관과 판매·환전, 정산·폐기·위변조에 대한 조치 등을 대행하게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화순사랑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2종으로 발행한다. 화순군은 구매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까지다.

화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지만 유흥업소와 사행업소, 대규모·중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최형열 화순군 부군수는 "화순사랑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면 지역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자급의 역외 유출도 방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성 축령산 편백숲 휴양·치유 쉼터 조성

### 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장성 축령산 편백숲이 휴양·치유 쉼터로 만들어진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완료한 축령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년 부터 2030년까지 산림청과 연계, 축령산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축령산 일대에는 157ha 면적에 수령 60년 안팎의 아름드리 편백 250여만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장성군은 이같은 축령산 편백숲을 관

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제·체험·관광·상품개발을 아우르는 축령산 편백 특구를 지정한 바 있다.

군은 국비를 확보해 축령산 편백숲 일대에 산악초지유정원, 하늘길, 하천길, 물놀이 시설, 먹거리단지, 다양한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림청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의 하나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축령산 국유림에 산림 치유시설을 확충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장성군, 평림댐 저수율 급감 대책 마련 나서

장성군이 평림댐 저수율 급감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을 비롯, 담양·함평·영광 등 4개 지역 광역상수원인 평림댐 저수율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44%에 머무르면서 안정적 용수량 확보에 나섰다.

현재 평림댐 유역 강우량의 경우 과거 30년 평균을 기준으로 65% 수준에 불과

하다는 게 장성군 입장이다.

군은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수칙'을 홍보하는 등 수도물 절약 운동에 나서고 있다.

장성군은 또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누수탐사도 진행키로 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장성군,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사활'

### 조정·검도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력 기대

장성의 최근 2년 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성적표는 초라하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9 시즌(2018년 7-8월, 2018년 12월-2019년 2월)에 1개 종목 22개 팀이 장성을 찾아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인원으로 집계할 경우 860명이 장성에 머무르며 경제적으로 6800만원에 이르는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 중 20위 수준이다. 2018 시즌에는 22개 시·군 중 19번째에 머물렀다.

장성도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선수단 유치에 공을 쏟고 있다. 많은 전지훈련 선수단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이다.

2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 국제 규격의 축구장과 트랙, 씨름장 등을 갖춘 종합 스포츠 시설인 '상무평화공

원 축구장'을 개장한 데 이어 지난해 국제 규격의 테니스 코트 5개 면을 갖춘 '위라벨 돔 경기장'을 완공했다.

장성군은 여기에 오는 2020년까지 공설 운동장을 준공한 뒤 2022년 도민체전을 비롯한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단이 훈련과 대회를 준비하느라 부족한 '스포츠 도시'로 육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들게 하겠다는 것이다.

장성호를 경기장으로 활용, 전국 규모 조정대회를 유치해 전국의 조정선수단을 불러들이기도 했다.

대한펜싱협회 청소년 국가대표(53명)도 다음달 8일까지 장성에 머무르며 훈련에 들어갔고 지난달에는 전국 5개 시·군에서 고교생 검도팀 70여명이 장성을 찾기도 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담양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7곳 77개소... 스마트폰 NFC로 조난신고 긴급 구조 요청

담양 금성산성 등 7개소 77개 지점에 스마트폰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 조난신고 위치를 지점번호와 GPS(위성항법)까지 문자로 전송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사진)이 설치됐다.

국가지점번호는 국토와 인근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문자와 숫자 등 모두 10자리로 표기된다.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 체계가 미흡한 곳에 설치해 조난 시 긴급 구조 요청 등에 활용된다.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성화한 뒤 뒷면을 지점번호판의 지정된 곳에 가져다 대면 신고자가 있는 위치의 지점번호와 GPS 문자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떠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NFC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의 경우 QR코드를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NFC 기능



을 활용한 지점번호판 설치로 조난시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